

춘천교구 주보 원고 모음집

전례와 미사의 영성

2022. 1. 30.~2023. 2. 12.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천주교 춘천교구 문화홍보국

차 례

1. 전례의 목적
2. 전례의 의미
3. 전례 시간의 의미: 오늘
4. 전례 시간의 의미: 주일
5. 전례 시간의 의미: 대림 시기
6. 전례 시간의 의미: 성탄 시기
7. 전례 시간의 의미: 사순 시기
8. 전례 시간의 의미: 파스카 성삼일
9. 전례 시간의 의미: 부활 시기
10. 전례 시간의 의미: 연중 시기
11. 전례 공간의 의미: 성수대(성수반)
12. 전례 공간의 의미: 감실(龕室)
13. 전례 공간의 의미: 독서대
14. 전례 공간의 의미: 제대
15. 미사의 영성: 입당
16. 미사의 영성: 인사
17. 미사의 영성: 뉘우침
18. 미사의 영성: 하느님의 자비
19. 미사의 영성: 하느님을 찬미함
20. 미사의 영성: 과거가 의미하는 것(독서)
21. 미사의 영성: 은총에 대한 응답(화답송)
22. 미사의 영성: 설렘(알렐루야)
23. 미사의 영성: 복음-기쁜소식 I
24. 미사의 영성: 복음-기쁜소식 II
25. 미사의 영성: 복음-기쁜소식 III
26. 전례와 미사의 영성: 강론-삶을 바라보는 시선
27. 전례와 미사의 영성: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28. 전례와 미사의 영성: 기도드림(보편 지향 기도)
29. 전례와 미사의 영성: 예물 봉헌
30. 전례와 미사의 영성: 예물 봉헌 II
31. 전례와 미사의 영성:
“감사함”, 은총을 담는 빈 그릇(감사송)
32. 전례와 미사의 영성: 성체성사와 성찬례
33. 전례와 미사의 영성: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것
34. 전례와 미사의 영성:
성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35. 전례와 미사의 영성:
성령 청원(Epiclesis)과 일치
36. 전례와 미사의 영성:
미사 안에서의 기념(Anamnesis)
37. 전례와 미사의 영성: 미사 지향
38. 전례와 미사의 영성: 영성체 전 ‘주님의 기도’
39. 전례와 미사의 영성: 평화의 인사
40. 전례와 미사의 영성: 성체를 쏘갸
41. 전례와 미사의 영성: 하느님의 어린양
42. 전례와 미사의 영성: 영성체
43. 전례와 미사의 영성: 마침 강복과 파견





전례와 미사의 영성 I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의 목적

“신부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 다른 신부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신부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전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순서와 바른 자세에 따라서 바른 전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치와 정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전례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는 전례의 목적에 따른 감사와 찬미 그리고 청원의 표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에 대해 전례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례 현장 10항)

여기서 우리는 전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통해 성화됩니다(전례의 하강적 측면).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전례의 상승적 측면). 모든 전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무언가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 하느님 은총으로 성화되는 순간인지, 그리고 참된 하느님 찬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먼저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례 때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기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 같을 것입니다.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는 로마 성 안셀모 대학교 전례학 박사로서, 현재 교구 전례 자문 위원, 포천 본당 주임, 수원가톨릭대학교 출강,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²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의 의미

“우리 신부님은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셔서 정말 미사가 은혜로워.”

“우리 신부님은 강론 말씀이 너무 좋아.”

서로 다른 본당 신자분들이 만날 때 가끔씩 이런 말씀을 나누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가 사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사로 대표되는 전례는 사제들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일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전례 현장 7항 참조) 이 가르침에 따르면 전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모두가 그분의 사제직을 수행하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공적 예배이기에, 단지 미사나 전례를 주례하는 사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례가 우리 모두의 행위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전례 현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이다.”(전례 현장 10항 참조) 즉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자,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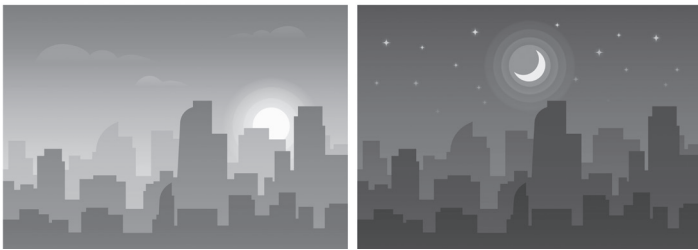
여기서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라는 것은 전례가 지향하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것은 전례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느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이루는 근원과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례를 통해 모든 신자들은 ‘파스카 신비에 바탕한 하느님 사랑’에서 은총과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와의 친교와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전례 현장 2항 참조) 전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파스카 신비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거행하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³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오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언가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받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인의 ‘오늘’도 단지 측정 가능한 시간적 의미의 하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살아있음은 항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들의 오늘은 언제나 하느님과 연관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든 오늘은 늘 하느님께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오늘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요한 1,9)이시고, “높은 곳에서”(루카 1,78) 솟아오르는 “의로움의 태양”(말라 3,20)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침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우리 자신을 그 신비에 내어 맡기는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오늘의 시작을 부활의 신비 속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가 끝나고 하느님께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최후의 만찬과 주님 십자가의 신비를 기념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미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기도는 그리스도 사랑의 신비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해돋이에서부터 해넘이까지 스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신비에 나의 오늘을 맞춰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오늘’ 안에서 바치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시간이 성화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오늘이 하느님의 영원한 오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은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오늘’을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4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주일

2세기경 유스티노의 「호교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태양의 날에 언제나 모인다. 이 날은 하느님이 어둠으로부터 질료를 끌어내어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유스티노, 「호교론」 1,67 참조)

여기서 말하는 태양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요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날을 참된 빛이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주일을 ‘주님 부활의 기념일’, ‘제8일’, ‘주간의 첫째 날’ 등으로 부르곤 하는데, 이러한 주일의 명칭은 각각 ‘믿음’, ‘희망’, ‘사랑’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로, ‘주님 부활의 기념일’이라는 명칭은 ‘믿음’과 연관됩니다. 주님의 파스카 신비로부터 탄생한 교회는(전례 현장 5항 참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이러한 파스카 신비를 특별히 기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파스카 신비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이룹니다. 주님 부활의 신비가 없다면, 우리 신앙도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그 신비를 믿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8일’이라는 명칭은 ‘희망’과 연관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주간을 7일로 나누는데, 이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제8일은 영원함을 상징하면서 종말론적 희망의 표현이 됩니다.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모습이 ‘제8일’이라는 표현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명칭은 ‘사랑’과 연관됩니다. 이날은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느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성찬례를 봉헌하며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히 주일의 은총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살아갑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5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대림 시기

“대림 시기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념을 통하여 시간이 끝날 때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때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대림 시기는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기다리는 때이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규범」 39항)

여러분들에게는 기쁘게 기다릴 무언가가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삶의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는 내 삶에 더 이상 아무것도 설레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대림 시기는 이제 내 삶에 기쁘고 설레게 기다릴 무언가가 있음을 알려 주는 시기입니다. 어둡고, 슬프던 내 삶의 밤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비취 주실 것임을 알려 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구세주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준비이며,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림 시기의 의미는 대림 4주간의 복음을 통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림 제1주의 복음은 ‘종말에 대한 준비와 깨어있음’을, 대림 제2주는 ‘세례자 요한의 구세주 오심에 대한 예고와 회개의 권유’를, 대림 제3주는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 탄생에 대한 준비와 기쁨’을, 그리고 대림 제4주는 구세주의 탄생을 앞둔 ‘성모 마리아의 넘치는 기쁨’이 그 중심 내용을 이룹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깨어있음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깨어있음을 통해 대림 시기 동안 성실한 준비를 해나갈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구세주 탄생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4주간으로 구성된 대림 시기는 전례의 성격에 따라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대림 제1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전반부는 종말론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되며,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후반부는 이제 곧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사철나무(늘 푸른 희망과 살아있는 생명력을 상징)로 둥글게 원형을 만들고(영원함을 상징), 4개의 초를(그리스도의 빛이 사방에 퍼져나감을 상징) 점진적으로 켜 나가면서(주님이 오시어 우리를 차츰 진리의 빛으로 비취주심을 상징), 우리의 ‘기쁜 기다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6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성탄 시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해마다 성탄이 되면 우리는 요한 복음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 말고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픈 ‘아니오’를 그분 사랑을 통해 기쁨의 ‘예’로 만드시는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약 4세기경부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빛과 진리의 신인 미트라 신’을 숭배하던 로마의 풍습에 대항하여 ‘태양의 날’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참된 빛이요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 교회에서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성탄의 의미로 생각하여 성탄을 1월 6일이나 1월 1일 다음에 오는 주일에 지냅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드러난 것은 성탄 축일에 봉헌하는 세 번의 미사(밤 미사, 새벽 미사, 낮 미사)전례에 담긴 신학입니다. 이는 교황 그레고리오 1세(590-604)의 강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먼저 ‘밤 미사’에서는 바로 오늘 밤 구세주의 탄생을 통해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벽 미사’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경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자 빛이심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낮 미사’에서는 한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사랑이 이뤄졌음을 말하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전해 줍니다.

이러한 성탄 시기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는 성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동료들과 함께 1223년 로마 근교 그레치오(Greccio)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구유에는 이방인을 표현하는 당나귀와 유대인을 표현하는 황소를 한 마리씩 놓으면서 구세주의 탄생이 모든 민족에게 기쁨과 희망이 됨을 알려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례와 신심 행위 안에 드러난 주님의 성탄은 우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여 줍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고 거두어 가는 빛이 아니라, 그 어둠 속으로 들어와 함께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빛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7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사순 시기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해매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도 어딘가에 하나쯤 솟아나는 샘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메마른 삶의 광야에서 다시 샘물을 찾아 나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는 내 삶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메마른 광야를 느끼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시기입니다. 내 삶이 마냥 힘겹고 슬픈 것만은 아님을,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에서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 이뤄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순 시기가 되면 모든 신앙인들은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통해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의 복음도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사순 제1주일 복음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유혹에 대해서, 사순 제2주일 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순 제3~5주일의 복음은 가, 나, 다해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가해 사순 제3~5주일의 복음은 세례성사를 받으려는 예비 신자들과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교리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순 제3주일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물이심을(요한 4,5-42), 사순 제4주일은 태생 소경의 치유를 통해 우리 삶의 참된 빛이신 주님에 대해(요한 9,1-41), 그리고 사순 제5주일은 라자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요한 11,1-45) 우리의 부활은 오직 주님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려 주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잠시 멈춰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더 가볍게 살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살기를 연습하는 날들입니다. 내 삶의 메마른 광야에 주목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기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8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파스카 성삼일



우리는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형태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나 자신이 결국엔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등등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일상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내 모든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상의 작은 죽음들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희망의 빛을 특별히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 다시 발견하고 간직합니다. ‘파스카 성삼일’은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까지 이어지는 시간이며 사순 시기와는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 성삼일’에 우리 신앙의 핵심인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성금요일로 이어지는 성삼일 첫날은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특별히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척하고 아프게 했으며, 그때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떻게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를 돌아보며 뉘우치게 됩니다.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부터 성토요일 부활 성야 전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저승(고성소)에 내려가심과 천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모든 이들과의 신비로운 만남(1베드 3,19-20 참조)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부활 성야에서 부활 대축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우리는 ‘파스카’(건너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감은 오직 주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선사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할 때 가능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서약을 갱신하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묻힌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됨을(부활 성야 세례수 축복 기도 참조)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과 기쁨은 고통과 죽음의 어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모든 고통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진정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의 승리’가 ‘그때 거기서’ 이뤄진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뤄지는 나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로마 6,8)

모든 피조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친교로 불리운 소중한 존재들이며,



전례와 미사의 영성⁹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전례 시간의 의미 : 부활 시기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랑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죽음의 어둠 앞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빛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새로운 생명을 만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 죽음 앞에 스러지고 말지만, 그 모든 죽음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 (위령 감사송 1 참조)이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허무로 만드는 어둠이라면, 그 어둠을 다시 허무로 만드는 것이 사랑의 빛인 부활입니다.

부활 시기는 주님 사랑의 빛이 어떻게 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부활 시기는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이어지며, 신앙인들은 주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 시기에는 특별히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이 포함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대축일 다음 40일에 주님의 승천을 경축하는 날로서, 이날을 의무 축일로 지내지 않을 경우에는 부활 제7주일이 승천 대축일로 지정됩니다. 주님의 승천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안에 영원히 현존 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의 승천은 당신 스스로를 위한 승천이 아니라, 재림까지 연결 되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후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는 마감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부활 시기의 마침이라는 것은 주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이 이제 우리 각자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청을 뜻합니다. 주님 부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은 성령의 은총과 도우심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가 이뤄졌다면, 이제 성령의 은총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어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가는 또 다른 파스카의 신비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끝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다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모든 슬픈 문장의 마침표에 이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 삶의 어둠과 슬픔으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부활은 알려 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천 년 전 주님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현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정하며,



전례와 미사의 영성¹⁰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시간의 의미 : 연중 시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전례와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게 됩니다. 축복은 사전적 의미에서 ‘앞으로의 행복을 빌어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느님만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중 시기는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신앙인 일상의 행복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주님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 쉬게 하고 그 신비의 기쁨을 삶 속에 녹아들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중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체적으로 경축합니다.

이 시기는 1년 중 고유한 특성을 지닌 시기(가령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를 제외한 33~34주간을 일컫습니다. 이 시기는 성탄 시기 후부터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전까지, 그리고 부활 시기 다음부터 대림 시기 전까지 두 기간으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이렇게 연중 시기는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지는데, 실제 연중 시기 기간이 33주간인 경우 연중 시기를 항상 ‘연중 제34주’로 마치도록 하기 위해 사순 시기 이전에 끝난 연중 주간과 부활 시기 이후 시작되는 연중 주간 사이의 한 주간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가령 연중 기간이 33주간일 경우 사순 시기 전에 연중 7주로 마쳤다면 부활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연중 8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를 ‘연중 제34주’로 통일하기 위하여 연중 9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연중 시기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께 희망을 두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살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시기를 나타내는 전례적인 상징색은 ‘녹색’인데 이는 생명, 평화와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화와 희망은 단지 인간적인 평화와 희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참된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누리는 평화와 희망을 살아가는 수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녹색’의 상징이 드러내는 것처럼 늘 생명의 푸르름을 살아가는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II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공간의 의미 : 성수대(성수반)

우리는 때때로 삶의 힘겨움과 상처로 인해 아파하곤 합니다. 그 힘겨움과 상처로 인해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은 왜 마치도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 어찌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당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안에서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공간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러한 성당에 들어서며 우리는 가장 먼저 성수대(성수반)에 있는 성수를 손으로 짚어 성호경을 하고 주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성수대는 성수를 담아 두는 작은 성수 그릇을 말합니다. 주로 성당 문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성수대에 담아 둔 성수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제가 축복한 물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수는 물이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어 축복하게 됩니다. 전례에서는 주로 사람과 사물을 축복할 때, 성전 봉헌과 구마식 때 성수가 사용됩니다. 사제는 이 성수를 사용하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서 성수를 짚어 성호경을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집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유는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화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죄스러운 모습과 악마를 쫓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성수로 저희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하고 기도를 바칩니다.

성수대에서 성수를 짚어 성호경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례 때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이처럼 세례 때의 물로 씻기고,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을 축복하는 성수 예식 안에서도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 세례를 받은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물 축복 예식 참조)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화하고, 세례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다시 깨닫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오직 하느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그분은 나를 말없이 안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전례와 미사의 영성 12

✎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공간의 의미 : 감실(龕室)

성당에 처음 오신 예비 신자분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금고 같기도 하고, 커다란 보석 상자처럼 생긴 저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성체성사에 대해 알게 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감실이라 부르며, 그 안에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비할 수 없는 귀한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것을...

감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셔둔 작은 방, 또는 작은 함(函)을 말합니다. 이러한 감실 안에는 성체포가 깔려 있으며, 그 위에 성체를 담은 성함(聖龕)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성체를 따로 모셔둔 이유는 초기 교회 때 질병이나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세기경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병자성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종자를 위한 성체 규정이 정해지면서 성체 보관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고, 4~5세기경 성당 안에 성체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이후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년)에서는 성체의 안전을 위해 감실을 열쇠로 잠그도록 하였으며, 13세기경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실제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벽면 감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견고한 금속으로 감실을 제작하고 적절한 장식을 통해 성체의 존엄성을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실의 위치와 관련하여 교회에서는 제대 위가 아닌 제단 안이나, 가능하면 성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으로 조배하고 기도하기에 알맞은 경당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315항 참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별도의 경당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성당 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모시도록 권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잘 띄는’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성당 중심에 모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현재화되는 제대가 성당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실은 제대의 중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고귀한 위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실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실은 미사가 거행되지 않는 시간에 신자들이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흠송하고,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聖幕, 탈출 26,1-14)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삶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감실은 주님의 현존과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도록 이끄는 길이 되어 줍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13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공간의 의미
: 독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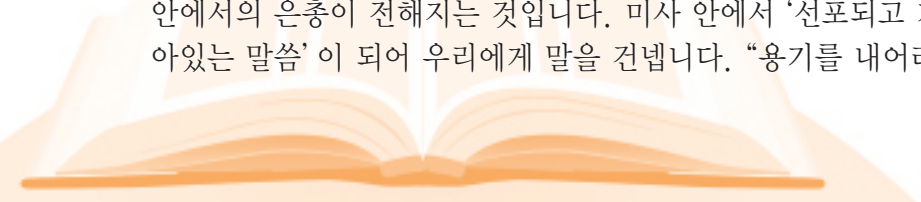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누군가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요즘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나 지난 시간의 상처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의기소침한 상태였는데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생각지도 못한 나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때 뭔가 다시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또 다른 작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코 건네는 말도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는데, 만약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오직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온종일, 아니 한 평생을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은총을 특별히 미사 때 말씀 전례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총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독서대입니다. 독서대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복음과 강론을 중심으로 한 말씀 전례는 바로 이 독서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아울러 화답송과 보편 지향 기도도 독서대에서 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독서대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백성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 성경 봉독은 언제나 독서대에서 한다. 따라서 제대나 해설대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으로서 성당 안에서 제대와 함께 전례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자리이다.” (미사경본 총지침 58항; 간추린 미사전례지침 p.18 참조)

그렇습니다. 제대가 성찬의 식탁이라면 독서대는 말씀의 식탁을 이룹니다. 그래서 독서대는 성당 안에서 말씀의 품위에 걸맞게 모든 교우가 쉽게 볼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의 식탁이라는 의미에 맞춰 독서대를 이루는 재료도 제대와 조화를 이루는 고상하고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독서대는 전례 안에서 제대와 짝을 이뤄 하느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 주며,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미사라는 완전한 제사 안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의 현존을 특별히 말씀 선포를 통해 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가 하나인 것처럼 독서대도 하나만 설치하게 되며, 이를 통해 말씀 전례(독서대)와 성찬 전례(제대)가 짝을 이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미사 안에서의 은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미사 안에서 ‘선포되고 거행된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세계 곳곳에서 환경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14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 공간의 의미 : 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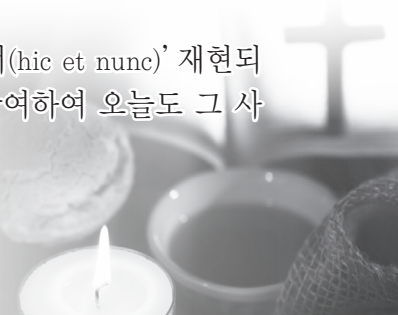
가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곤 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디를 향해 인사해야 하지? 제대 벽면에 걸려 있는 십자가인가...? 아니면 성체가 모셔진 감실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깐의 고민 끝에 감실과 십자가 사이에 두루뭇술한 방향으로 인사하면서 이 문제(?)를 나름 자체적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물론 하느님께 흠숭을 표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의 중심은 어디이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성찬례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며 그분 사랑의 신비가 이뤄지기에 제대가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감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감실은 병자들이나 또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체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체 공경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즉 감실은 제대에서 이뤄진 성체성사의 사랑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실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서 성찬례가 거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우리 구원의 신비가 현재화되는 제대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 초기에 사도 시대에는 별도의 제대 개념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행한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일반 식탁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별도의 고유한 식탁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제대의 주재료는 3세기까지 주로 나무를 사용하다 밀라노 칙령(313년)을 통한 종교의 자유 이후에 고정된 형태의 돌제대가 차츰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뵈고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돌로 표시하면서 그 돌이,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창세 28,10-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에페 2,20-21)이 되심과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바위’(1코린 10,4)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대의 방향도 동쪽을 향해 자리를 잡게 되는데, 동쪽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이 뜨는 방향이라서 참된 빛이며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대는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지금 여기서(hic et nunc)’ 재현되는 구원의 상징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에서 이뤄지는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여 오늘도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¹⁵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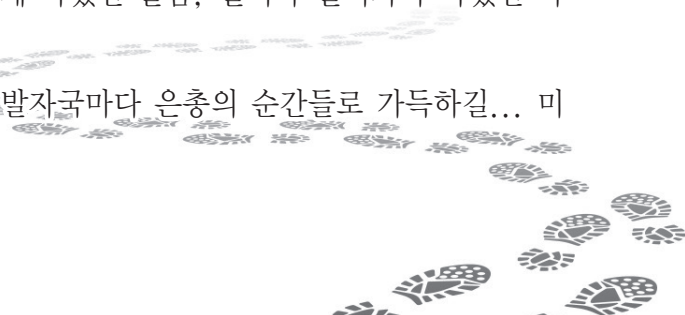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종종 그 병자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벳자타 못 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병들어 있던 이에게도, (요한 5,1-9 참조) 그리고 평상에 누워있던 중풍 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9,1-8; 마르 2,1-12; 루카 5,17-26 참조) 그들에게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두 다리로 어딘가를 향해 움직인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질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던 그들에게 걸어간다는 것은 죄스러운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도 된다는 허락이며, 새로운 삶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까... 왜 나를 둘러싼 환경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머물렀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해 일어나 걸어갑니다. 매 미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의 어둠과 슬픔에서 일어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망의 동굴’로부터, 그리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두려움의 장막’ 으로부터 벗어나 ‘믿음의 집’ 으로 하느님을 향해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이천 년 전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입당 성가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킵니다. (미사 경본 총 지침 47항 참조) 그 순간, 지금 여기서 재현될 구원의 희생 제사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 성호를 그으며 내가 세례를 받았던 기억과 하느님께 사랑받았던 순간의 감사를 불안한 내 삶 속에 새롭게 새깁니다. 나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니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 삶 속에 십자 성호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십자 성호를 통해 그분의 은총이 내 시간 속에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느님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 발걸음마다 그 옛날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던 벳자타 못 가의 병자와 중풍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도 들려오길 청해 봅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기쁜 오늘을 걸어가길... 내 삶의 발자국마다 은총의 순간들로 가득하길... 미사를 시작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시편 33,6)



전례와 미사의 영성 16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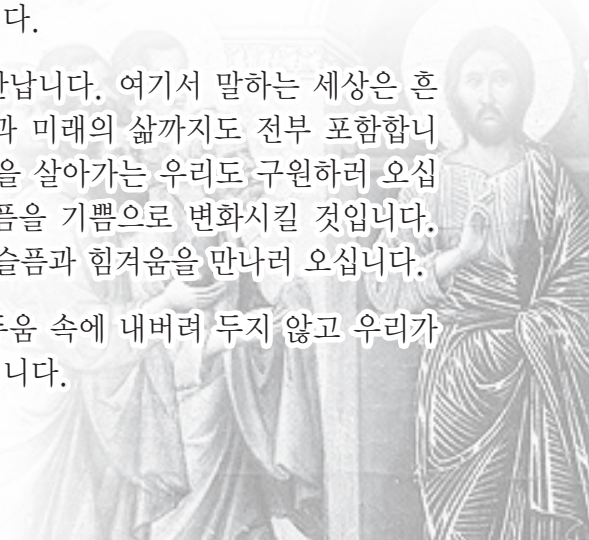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만남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단지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사실 한 사람의 모든 삶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말을 건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지난 슬픔이 또 다른 누군가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고, 누군가의 기쁨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쁨에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지닌 삶의 시간이 하나로 어울리는 순간이 만남이기에,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 중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특별한 만남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미사를 시작하면서 주례 사제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가 건네지는 순간은 단순히 미사를 집전하는 주례 사제와 미사에 참례한 신자들과의 의례적 인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인사는 주님의 현존하심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과 희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사 안에서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다가온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삶의 시련 속에 불안해하며 세상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요한 20,19)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르 6,50).

미사를 시작하며 건네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 신자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사제의 영은 사제 개인이 지닌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의 성령을 말합니다. 즉, 사제는 한 개인으로서 미사를 주례하는 것이 아니라, 서품 때 받았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천 년 전 십자가상 희생 제사가 다시 재현되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서 현재화됩니다.

이렇게 미사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를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흔히 말하는 온 세상일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 시간과 현재의 순간과 미래의 삶까지도 전부 포함합니다. 미사 안에서 이천 년 전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삶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슬픔과 힘겨움을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인사는 우리를 절망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빛과 생명에 항상 머무르도록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사랑의 인사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전례와 미사의 영성 17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뉘우침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다르게 행동했다라면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후회 속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회 속에 지난 과거를 괴로워하는 모습은 때때로 자신의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간의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지난 시간에 대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곁으로 봤을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사는 동안 모든 것을 갖춰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그 뒷면에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후회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간적 나약함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면 ‘후회’가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 후회를 매번 후회로만 남겨둔다면, 항상 그 후회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후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뉘우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뉘우칠까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난 잘못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뉘우침의 기준은 바로 하느님께 있습니다. 미사 때 사제가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잘못들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아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 아픔을 다시는 그분께 드리지 않겠다는 ‘뉘우침’을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뉘우칩니다. 살아가며 생각을 통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더 마음에 담아두었음을...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아픔을 주었음을...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하느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더 좋아하며 그분을 멀리해 왔음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형성해 왔기에 생각만의 탓도, 말만의 탓도, 그리고 행동만의 탓도 아님을 뉘우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18

✎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하느님의 자비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삶의 힘겨운 고개를 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 보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삶의 힘겨움이 눈앞에 마주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체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란 한낱 스쳐 가는 바람이며, 한 줌의 먼지와도 같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에 대해 가슴을 치며 뉘우칠 수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Kyrie eleison)으로 표현되는 이 자비송은 눈이 멀었던 바르티메오의 외침인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7)와 연관된 것으로 원래는 동방 교회에서부터 행해지다가 5세기경 순례자들에 의해 로마 교회에 유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송은 찬미와 참회를 위한 간청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로, ‘주님’(Kyrie)이라는 호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비를 베푸소서’(eleison)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간청은 다른 말로 ‘하느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에 대한 희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비록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죄 많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렇게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자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례와 미사의 영성¹⁹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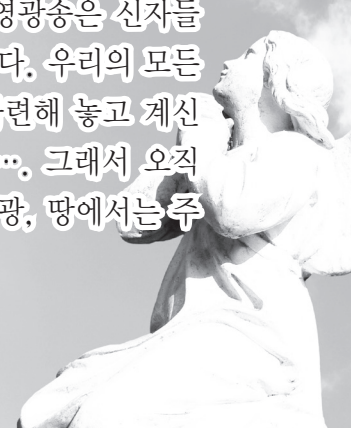


미사의 영성
: 하느님을 찬미함

우리는 가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을까? 그리고 내 주 위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데 잠시 멈춰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과 힘겨움만 가득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과 힘겨움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사실 내가 불평하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날 수도 있지요. 또한 살면서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로마 8,28)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 안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 먼저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새 영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론 모음집인 *De Sacramentis*라는 책에서 ‘하느님을 찬미함’이 모든 기도의 첫 자리에 와야 함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나 자신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며, 지금의 내 생명과 삶이 그분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찬미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모든 하느님 찬미와 감사의 정점인 미사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한 후, 대영광송을 부르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길 마음을 모아 노래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영광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노래를 바탕으로(요한 2,13-14 참조)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린양을 찬양하고 간청하는 찬미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대영광송은 신자들에게 빛과 희망의 기쁨을 건네줍니다. 이러한 찬미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그 삶의 모퉁이마다 기쁨과 감사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을 선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모든 피조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친교로 불리운 소중한 존재들이며,



전례와 미사의 영성 20

✎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과거가 의미하는 것 (독서)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또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계속 그 일로 속상함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지난 삶 속에는 우리가 잊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 하나쯤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과거는 때때로 내 삶에 멍에로 다가와 나의 오늘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의 내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나의 오늘을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고 싶은 과거가 항상 내 삶의 짐이 되기만 하는 걸까요? 만약 상처 입은 과거가 나의 오늘을 지배하면, 그때 그 과거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통해 과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과거는 나의 오늘을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사 독서 때 듣게 되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를 전해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지난 시간 속에 주어졌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절망을 보고, 그들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절망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통한 희망과 사랑 또한 봅니다. 신앙인이 과거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단지 지난 시간 속에 상처받았던 아픔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용서를 발견하며,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과거의 이야기가 우리의 오늘에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미사 독서를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은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항상 현재라는 시간과 공존을 통해 신앙인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여 줍니다. 이 말씀은 현존하는 하느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며, 하느님 구원 업적의 기념과 선포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오늘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낳고 기르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힘을 얻습니다. 그러하기에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그 과거를 통해 새로운 오늘을 살아갈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진정 그 말씀이 나의 오늘 속에 반짝이며 빛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초대 속에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21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은총에 대한 응답
(화답송)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자신의 삶에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껏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고 후회가 되곤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보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내 삶에 대해 불평하곤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혼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나에게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삶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다가왔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의 모퉁이마다 만난 천사 같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도,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항상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겸손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1독서를 통해 과거의 시간 속에 다가온 하느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의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내 삶에 건네는 하느님 사랑의 초대임을 깨닫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독서 후에 하는 화답송은 ‘다가온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화답’ 하는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됩니다. 지난 시간 내가 받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노래입니다. 내 삶의 어둠에 비춰진 빛에 대한 감사이고, 내 슬픈 시간의 눈물을 닦아 주시던 하느님 손길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바탕으로 찬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약속이며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화답’ 합니다. 하느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화답’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미하며 응답’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느님 은총에 대한 응답의 노래인 “화답송”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던 그 순간조차도 당신 자비로 돌보시던 하느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내 삶을 그분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의 노래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²²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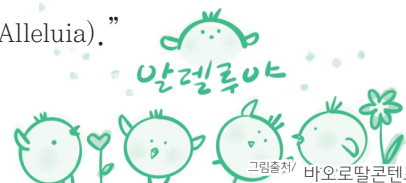
미사의 영성 : 설렘(알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과 손에 주름이 늘어갈 때 느낀다는 분도 계시고, 어느 날 문득 자녀나 손자들이 훌쩍 커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낀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 듦과 더불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서 설렘이 조금씩 사라져 갈 때입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에서 호기심도, 그리고 설렘도 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가령 어렸을 때는 여행이나 소풍 가기 전날 들뜨고 설레는 마음에 뜬눈으로 잠자리에서 뒤척였던 모습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릴 적 그런 설렘의 모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필요한 물품 준비나 교통편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로 먼저 고민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보다 더 큰 덩치의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줄 맞춰 지나가는 개미들에 대해 놀라워하며 한참을 쳐다보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에 이젠 놀라워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삶의 힘겨움을 짊어진 채, 지친 모습으로 세상에 줄 맞춰 걸어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설렘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삶의 또 다른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설렘을 우리는 특별히 미사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 마주치는 어둠과 뜻하지 않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이 되어 줄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이 슬픔과 삶의 고통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설렘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설렘을 “알렐루야” 를 통해 노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을 찬미하라’ 는 의미의 “알렐루야” 는 ‘하느님으로 인해 이제 설레는 삶을 다시 살아가라’ 는 초대의 다른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초대 앞에 모든 이들은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차 일어서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 에 대한 믿음을 고백’ (미사 경본 총 지침 62항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나,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설렘을 마음 가득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알렐루야(Alleluia).”



세계 곳곳에서 환경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23

✎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복음-기쁜소식 I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함께 모여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때... 긴 시간 마음속에 머물러있던 원망과 미움을 훌훌 털고 이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무언가에 열중해서 열심히 일하다 문득 쳐다본 저녁노을이 너무 아름답다 느낄 때... 아마도 이렇게 삶의 순간들 속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시간에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무언가를 꼭 이뤄야 하고, 또 무언가를 꼭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내 삶에 대한 목마름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원하던 무언가를 이뤘을 때 그 순간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 행복감이 사실 오래가지 못함을 깨닫곤 합니다. 원하던 것이 이뤄지면 내 삶이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삶은 여전히 나에게 힘겨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 얼굴을 가진 어려움들은 그 모습만 바꾼 채 또다시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지 외적인 조건의 충족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행복을 찾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가지는 좋은 느낌과 감정이 ‘즐거움’이라면, 내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이뤄지며, 오히려 기쁨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금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 그러한 내적인 기쁨을 하느님을 통해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의 내 삶에도 함께하시리라는 희망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무게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하느님께서 사랑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억눌린 이들을 일으키시며, 슬퍼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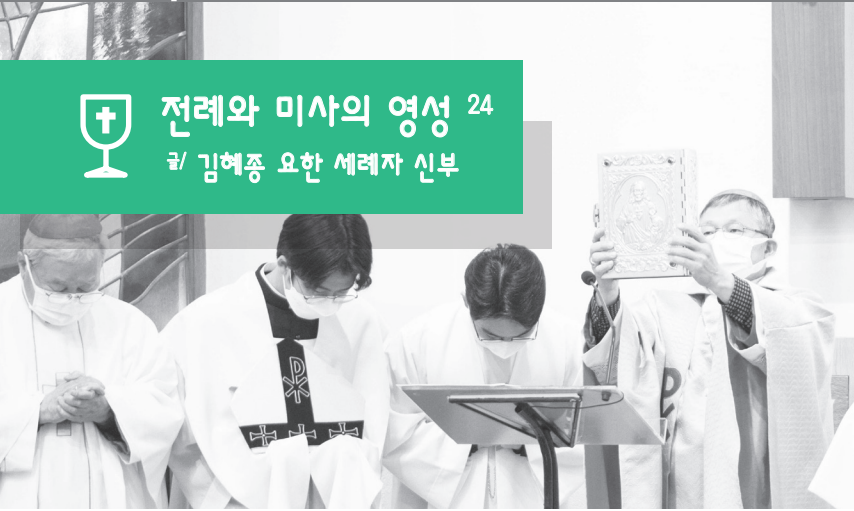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시편 33,6)



전례와 미사의 영성 24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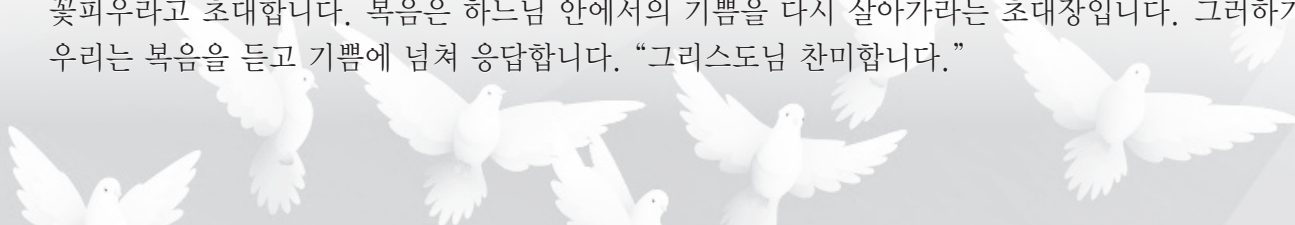


미사의 영성 : 복음-기쁜소식 II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기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은 나의 오랜 고민,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미움과 분노, 그리고 지난 시간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삶을 살아갈 희망을 느낄 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갑게도 신앙인들은 이런 순간들을 선물처럼 선사받습니다. 바로 미사 때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복음을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소식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응답, 그리고 내 삶의 오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이 세상 삶이 전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너머를 생각하며 살아갈 ‘새로운 시선’을 선물받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메마르게 만드는지 깨달으며, 하느님 안에서 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함을 아는 ‘새로운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인간적 힘겨움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또한 발견합니다. 가, 나, 다해의 3년 주기 안에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이렇게 내 삶에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희망’을 건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신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의 또 다른 ‘파스카 신비’를 이뤄 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듣기 좋은 이야기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또한 수필집이나 에세이 등에 나오는 것처럼 말랑말랑하고 위로를 주는 듯한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복음은 진정 내 영혼의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입니다(로마 6,22-23 참조). 미사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때 복음은 내 삶으로 들어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살아가라고, 메마른 영혼의 생명을 다시 꽃피우라고 초대합니다. 복음은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을 다시 살아가라는 초대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기쁨에 넘쳐 응답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25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미사의 영성 : 복음-기쁜소식Ⅲ

우리는 미사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내 삶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자신에게 말 건네진 것에 대해 스스로를 소집하는 모습이며, 주의를 기울이며 따르는 모습이 됩니다(E. Kettering, Nähe, Das Denken Martin Heideggers, Neske, 1987 참조).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무언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듣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그 들음이 이해의 차원을 넘어 깨달음의 차원으로 넘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존재로 들을 때, 그 들음은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힘겨운 내 삶에 진정 필요한 가르침이고 진리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진정 ‘기쁨’으로 다가오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이 조금씩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살아간다는 것’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 깨달음을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이 회복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하고자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에게만 기쁜 것은 참으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쁘는데 함께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직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기쁨을 정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간직한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고, 그 기쁨이 모두의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행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으며 그 깨달은 바를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가 살아 있는 또 다른 복음서가 되어 갑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루는 모든 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자신의 삶 속에 써내려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하듯,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26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강론-삶을 바라보는 시선

미사 때 복음이 선포된 후, 우리는 강론 말씀을 듣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강론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사 때 듣는 강론은 삶에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강론은 무엇보다 전례 거행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강론 지침 6항 참조).

여기서 강론을 이루는 중요한 세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느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례 거행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셋째로 ‘지금 여기서’ 우리 삶과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전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희망하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강론의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강론은 그날 전례 안에서 선포된 하느님 말씀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 기도문 등에 대한 설명을 그 내용으로 하면서(미사 경본 총지침 65항 참조)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론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무언가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많은 경우에 여전히 삶의 힘겨움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드나...’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미사 때의 강론을 통해서 그런 ‘내 삶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진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미사 전례 안에 스며 있는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을 비춰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의 마지막에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반대로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미사 전례 독서와 복음, 그리고 전례 기도문에 녹아 있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강론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고, 전례 안에서 얻은 은총의 힘으로 삶을 희망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또 다른 말씀이 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시선’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의 친교로 불리운 소중한 존재들이며,



전례와 미사의 영성 27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례 때 고백한 신앙을 미사 중에 다시 고백하며 내가 진정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신경”, 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때 단순히 입으로만 암송하고 넘어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잘 담겨 있습니다. 라틴어 사도 신경을 보면 “Credo in Deum.” 이라고 시작하는데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경우 Credo in unum Deum) 이 표현 안에서 우리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신경의 처음에 “Credo Deum” 이라고 하지 않고 “Credo in Deum”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와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in”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는 ‘하느님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분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 활동’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됩니다. 즉,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와 그분 사랑의 손길과 은총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두 신앙 고백들(사도 신경,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먼저 당신 사랑을 보여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이 어떻게 계속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면서 우리 믿음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선사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과정이 신앙 고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그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례 안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또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는 이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자는 그의 삶 전부를 그분과 같이 살도록 힘써야 한다... 진실로, 지고한 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지 않는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덕스런 삶이다” (Opera omnia, II 참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또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감으로써 내 삶의 숨결과 몸짓 하나하나가 기도이자,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28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기도드림(보편 지향 기도)

미사 경본 “연중 주일 감사송 1”에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파스카 신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선택된 겨레이자,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알려 줍니다. 이렇게 이 기도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흥미로운 부분은 “임금의 사제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제 서품을 받지 않은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사제단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 보편 사제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의 삶을 하느님께 영적 예물로 바치는 그런 사제직을 우리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이런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미사 안에서 특별히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편 지향 기도입니다. 사제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특별히 미사 때 보편 지향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보편 지향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 (1코린 12,27)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은총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겨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내리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보편 지향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청하는 기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 말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삶에 선포된 복음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즉 이미 들은 복음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안에서 다짐하고, 이러한 응답의 삶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 간직한 주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제직을 삶 속에서 증언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을 하느님께 영적 예물로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그분께 향기로운 분향 제물로 봉헌합니다.

현대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정하며,



전례와 미사의 영성 ²⁹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예물 봉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어르신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돈은 깨끗한 새 돈이니까 잘 뒀다가 주일 미사 때 봉헌해야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루카 21,1-4 참조) 문득 떠오릅니다. 복음 속 그 가난한 과부가 봉헌의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어르신들처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여 마침내 삶의 전부를 기쁘게 봉헌할 수 있는 것은 아닐는지....

이러한 삶의 봉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때가 있는데 바로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예물 봉헌입니다. 특별히 주일 미사나 대축일 미사 중에 봉헌 행렬을 통해 신자들은 예물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 가진 것을 감사와 찬미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는 사실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진 모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처음에는 빵이나 포도주를 비롯하여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봉헌하였습니다. 성찬례를 준비하기 위해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빵과 포도주의 봉헌은 자신들 삶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11세기경부터는 이러한 예물 봉헌이 헌금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봉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릴 빵과 포도주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성찬 전례를 시작하면서 신자 대표자 두 분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예물로 봉헌되고, 이어서 우리가 봉헌 행렬 안에서 봉헌금을 낼 때 그 예물과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사라졌던 예물 봉헌을 위한 행렬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되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요? 때로는 슬픔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모르게 상처받아 홀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속상함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정성스럽게 간구합니다.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듯,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삶도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래서 봉헌은 하느님께 단지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바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치유와 새로 남의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 봉헌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 4,13).



전례와 미사의 영성 30

✎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예물 봉헌II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삶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힘겨움의 시간을 신앙 안에서 향기롭게 가꾸어 냅니다. 그리고 본인도 넉넉하지 않지만, 주위의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가진 것을 남몰래 나누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만들어 가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감사함’을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기쁘게 자신을 봉헌하게 만듭니다.

감사함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속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며 하느님께 완전히 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자신에게서 하느님께로 건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던 것들이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 의미가 변화되고, 또한 하느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빵과 포도주의 봉헌 행렬 때 사제가 제단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단은 거룩한 곳으로서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성당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특별히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는 제대가 놓인 공간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빵과 포도주는 이제 봉헌을 통해 거룩한 공간, 즉 제단으로 건너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건너감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봉헌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자신을 하느님 안에서 다시 찾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봉헌은 은총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어놓음’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시 찾음’입니다. 버림으로써 얻고, 비움으로써 다시 채우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봉헌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봉헌의 대상이 항상 ‘하느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드러질 수 있을 때 그 시간은 새롭게 변화되고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 간다고 느끼신다면 그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인간적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럴 수 있을 때 예물을 봉헌하며 바치는 사제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전례와 미사의 영성³¹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감사함”, 은총을 담는 빈 그릇 (감사송)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며, 또 자신의 삶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비춰 주며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감사함의 이유로는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가 이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스러운 모습이어도 그저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 “감사송”을 통해 사제는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렇게 감사드림은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감사이고, 그분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길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많은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 사랑과 자비를 건네셨음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사’ (Missa)라는 용어가 쓰이기 전에 성찬 전례를 ‘에우카리스티아’ (Eucharistia)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1360항에서는 “성찬 전례는 성부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며,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창조와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교회가 드리는 찬미이다. 성찬 전례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감사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속에서 이미 다가온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도 하느님의 손길 속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출발점은 무엇보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두 손 모아 의탁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이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알 때...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결과를 이루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 때... 그리고 하느님의 허락하심 없이 단 한 순간도 살아가지 못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찬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32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성체성사와 성찬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체성사’와 ‘성찬례’는 다른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성체성사’와 ‘성찬례’는 같은 듯 보이지만 엄밀히 보자면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면서 세운 성사를 말하는 반면, ‘성찬례’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그러한 성체성사를 기념하여 행하는 예식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미사 때 거행하게 되는 성찬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된 성체성사를 ‘기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기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어떤 뜻깊은 일이나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차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찬례를 통한 ‘기념’은 ‘구원 사건의 재현, 그리스도 구원 신비가 지금 여기서 현재화’ 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에 십자가에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안에 현존하신다.’”(「가톨릭교회 교리서」1088항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즉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가 바로 여기서 재현되며, 성체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건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총에 대해 성 베드로 울리아노 예마르(St. Peter Julian Eymard)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은총, 도움, 위로) 성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따뜻한 말들, 또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적들[...]. 예, 그렇습니다. 성체 안에는 기적들까지 담겨 있습니다.”(스테파노 M. 마벨리,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가톨릭출판사 참조)

그렇습니다. 성찬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상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그분의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가 지금 여기서 현재화되는 성찬례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오직 주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됩니다.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가(과거), 지금 여기서(현재) 재현되면서, 천상 예루살렘 잔치에 미리 참여하는(미래) 순간들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과거는 믿음 안에 승화되고, 우리의 현재는 주님 사랑으로 향기로워지며,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³³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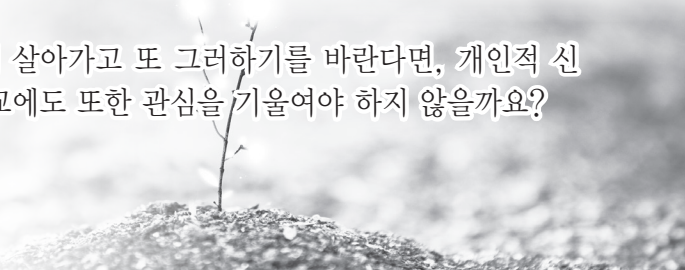
개신교를 다니다 개종해서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장로님과 집사님이 서로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다들 점잖으셔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이 보여도 힐끔 쳐다보고 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청소도 안 된 집에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친 것처럼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아니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마리아처럼 내적 신앙생활에 좀 더 익숙할 뿐이야’라고 애써 위로해 보지만, 뭔가 씩씩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주교 신앙인은 내적 신앙 성숙에만 애쓰는 사람들일까요? 또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이와 관련하여 교회 헌장 11항에 성체성사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헌장은 성체성사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성체성사이며, 지향점도 역시 성체성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성체성사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더불어 늘 성체성사의 사랑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개신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의 태도 차이와 관련하여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은총의 모습 중에 이중적(二重的) 친교(communio)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이중적 친교는 먼저 하느님과 친교와 일치(共融)를 말하고, 다음으로 다른 이들과의 영적 친교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2베드 1,4)이 되고, 하느님과 참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영성체를 통해 하느님과 친교와 일치를 이룹니다. 또한 이러한 친교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친교가 진정으로 이뤄질 때 이제 다른 이들과 참된 친교를 이루는 것 또한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친교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 문입니다.”(1코린 10,16-17)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체성사의 은총은 그리스도와 일치뿐 아니라 신앙인 사이의 일치를 드러내고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이런 측면에서 성체성사를 ‘일치의 표지와 사랑의 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참된 친교와 일치 안에 살아가고 또 그러하기를 바란다면, 개인적 신앙 성숙도 중요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다른 이들과의 영적 친교에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34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성변화는 언제 일어나는가?

가끔 신자분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미사 때 언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언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나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신부님이 함께 모여 공동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할 경우입니다. 성찬 기도문 중 주례 사제가 예수님의 ‘성찬 제정 말씀’을 기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순간 공동 집전 사제들이 오른손을 빵과 성작을 향해 펼치게 되는데 대부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반면에 드물긴 하지만 어떤 신부님들의 경우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거나, 또는 손바닥이 위나 아래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듯이 손을 펼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왜 신부님들의 손 모양이 다를까요? 이는 사실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성변화의 시점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의 ‘성찬 제정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전에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특별히 성령으로 인하여 빵과 포도주가 축성되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변화되었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다음 ‘성찬 제정 말씀’ 부분에서 성령의 강림을 청하는 안수 형태(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방식)의 손동작이 아니라, 방향을 지시하는 듯한 형태(손바닥이 위를 향하거나 방향을 지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방교회(로마 전례)의 전통 안에서는 ‘성찬 제정 말씀’을 통해 성변화가 일어난다는 관점이 강합니다. 특별히 4세기 암브로시오 성인의 “De Sacramentis” 등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찬 제정 말씀’을 통해 성변화가 일어난다는 관점을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성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변화는 일반적으로 성찬 기도문 전체를 통해 이뤄지지만, 굳이 그 시점을 보자면 사제가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라고 말하며 두 손을 예물 위에 펴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성찬 제정 말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을 거쳐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있는 감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변화의 참된 의미는 비로소 꽃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시편 33,6)



전례와 미사의 영성³⁵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성령 청원(Epiclesis)과 일치

“오, 예수님, 거룩해진다는 건 얼마나 쉬운지요. 선의만 조금 있으면 되니까요. 예수님은 영혼 안에서 매우 작은 선이라도 발견하시면 서둘러 당신을 영혼에게 주십니다. 그때는 영혼의 잘못도, 넘어짐도,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매우 관대하시며 아무한테도 당신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까지 하는 분입니다. 성덕에 이르는 지름길은 성령의 영감에 충실히 머무는 것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中).

성녀 파우스티나의 이 아름다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룩함의 샘” (감사 기도 제2양식 참조)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함에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바치는 성찬 기도문(감사 기도 제2양식)에는 두 군데에서 성령의 은총을 청하는 부분(Epiclesis)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봉헌한 예물(빵과 포도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길 청하면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라고 사제가 청원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신비여” 를 노래한 후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언급된 성령 청원은 성령께서 예물(빵과 포도주) 위에 내리길 바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성령 청원은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내리길 바라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청하는 부분에서 그 대상은 ‘빵과 포도주’(첫 번째)와 ‘신자들’(두 번째)로 다르지만, 이 성령 청원을 통해 지향하는 의미는 서로 연결됩니다. 즉 성령을 통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고, 그 몸과 피를 받아 모시게 될 이들 또한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몸과 피)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해 달라는 청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은총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참으로 일치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도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사랑의 샘이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구원 또한 그분과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럴 수 있을 때 성모님께 들려왔던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루카 1,35).



전례와 미사의 영성 36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미사 안에서의 기념 (Anamnesis)

미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거행하는 주님 사랑과 희생의 기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전례 안에서 바치는 감사 기도를 통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며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 죽음과 부활을 다시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Anamnesis)하는 부분은 ‘성령을 청원하는 부분’(Epiclesis)과 더불어 성찬 전례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념’ 부분에서 교회는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 신비를 통해 우리를 성부와 화해시키신 그리스도를 성찬의 희생 제사 안에서 성부께 봉헌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례적 ‘기념’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전례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전례적 기념이 우리의 인간적 기억에만 관련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축제적 기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례적 기념에는 하느님의 실제 ‘기억’이 포함되며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세상 창조 때부터 효과를 낸다(묵시 13,8). 그러므로 전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범주를 포괄하고 넘어가는 신비를 현존케 한다. 우리 기억을 하느님의 기억에 합치시키는 모든 전례적 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한다”(주비안 피터 랭, 전례 사전, 가톨릭출판사 2005, 68 참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첫째, 전례적 ‘기념’이 인간적 ‘기억’을 초월하여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 둘째, 전례는 시간의 범주(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것이기에 전례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사 때의 ‘기념’은 이천 년 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단지 인간적으로 ‘기억’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통해 우리의 유한성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미사 안에서 행하는 기념은 단순히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며 ‘지금 여기서’ 그 구원 사건이 재현되고 현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례적 ‘기념’을 통해 이천 년 전의 구원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이, 아니 ‘우리’의 구원이 ‘지금 여기서’ 이뤄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차 기쁨 가득한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기후 난민을 위해 기도하기



전례와 미사의 영성³⁷

✎ 김혁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미사 지향

우리는 보통 미사 때 지향을 두고 기도합니다. 미사에 참례하면서 각자 마음속으로 지닌 지향도 있겠지만, 보통 미사 전에 해설자나 또는 미사를 주례하시는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는 누구누구를 위해 지향을 두고 봉헌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곤 합니다.

이렇게 ‘미사가 누구를 위하여’ 바쳐지는 것을 ‘미사 지향’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제가 그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미사가 오로지 그분들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미사 지향을 넣은 분들이 그 미사를 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사 때 지향이 있는 것은 사제가 그 지향을 미사 안에서 특별히 기억하며 신자들과 함께 기도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사 지향을 우리는 보통 ‘생미사’와 ‘연미사’로 나누곤 합니다. 생(生)미사는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정 또는 공동체에 하느님의 은총과 필요한 도우심이 주어지길 청하거나,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미사입니다. 반면에 연(煉)미사는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의 공로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위해 나누려는 뜻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미사입니다. 연미사는 보통 ‘연옥(煉獄, purgatory)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위령(慰靈)미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 지향과 관련해서 보통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해설자가 알려 주거나, 또는 미사 경본 총지침 50항의 “교우들에게 인사가 끝나면, 사제나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는 그날 미사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미사 시작 때 주례 사제가 말하곤 합니다(하지만 이 지침의 본래 의미는 전례력에 따른 그날 미사의 전례적, 성서적 주제와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사 지향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사 때 지향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제의 영적이고 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들 앞에서 공표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향을 공표하지 않아도 사제가 미사 때 그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하였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미사 지향 알림은 이러한 사제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에게 그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하느님 안에서 더욱 서로가 일치되기 위한 하나의 초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38

리/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영성체 전 ‘주님의 기도’

어떤 신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혼자 ‘아멘’ 이라고 해서 엄청 창피했어요.” 그런데 왜 미사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는 ‘아멘’ 이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사 때 왜 주님의 기도를 바치나요?

사실 주님의 기도는 초대 교회 때부터 전례나 개인 기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신자는 일상 안에서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날마다 세 번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주님의 기도가 미사 전례 안에 차츰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 있는 ‘일용할 양식’ 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교회의 교부들은 무엇보다 성체와 연결시켜 이 양식의 의미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주님의 기도는 영성체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 기도로 여겨지게 되었고, 4세기경 동·서방 전례에 모두 도입됩니다. 그래서 가령 테르툴리아누스 성인(Tertullianus, 155~240)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간청을 영성적으로 알아들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요 생명의 빵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는 구절과 연관해서입니다. ‘죄의 용서’ 는 무엇보다 합당한 영성체를 위한 훌륭한 간구로 여겨졌습니다. ‘죄의 용서’ 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아우구스티누스 성인(Augustinus, 354~430)은 신자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가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일상사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씻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 전에 ‘깨끗한 얼굴’ 로 이 거룩한 식탁에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욕은 고해성사와 연관되어 우리 죄를 씻는 것이며, 얼굴을 씻는 것은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용서를 청하는 부분’ 과 연관되어 일상의 잘못을 씻고 비로소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 을 청하는 기도로서 영성체를 준비하고, ‘죄의 용서’ 를 청함으로써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사 때 바치는 주님의 기도 다음에 ‘아멘’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사제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 내용과 신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제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그리고 모든 시련에서의 보호와 복된 희망 안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정성되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를 향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구원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39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평화의 인사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를 소개하고, 원래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 안부를 물어보으로써 유대감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의 의미는 사실 가만히 보면 단순한 안부 나눔이 아닙니다. 한 존재와 또 다른 한 존재, 그리고 한 사람의 지난 삶의 역사가 또 한 사람의 삶의 역사를 만나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나’와 ‘너’를 떠나 ‘우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매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미사 때 이 인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사실 미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신자들도 있으니 미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영성체 전에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눌까요?

미사 때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로마서(16,16)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나 베드로 I서(5,14)에 나오는 “사랑의 입맞춤”이란 의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의 인사는 화해와 일치 의미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영성체를 통해 성체를 모시며 그리스도와 일치하기에 앞서, 먼저 신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함으로써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평화의 인사를 예물 봉헌 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과 화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마태 5,23-24 참조). 이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치릴로(315-387) 성인은 평화의 인사를 화해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면 이 평화의 인사를 통해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예식은 7세기경부터 영성체 전으로 그 순서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서로 간의 일치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영성체 전에 이런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신자들 간의 일치를 넘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화의 인사는 궁극적으로 ‘신앙인 공동체의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향한 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인사는 단순히 주위 사람들과 가볍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나누고 기원하는 기도이자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천상 예루살렘에서 누릴 종말론적인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일치하여 걸어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40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그림출처/ 바오로딸콘텐츠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성체를 쪼갬

미사 때 평화의 인사 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제단 위 사제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사제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성체를 쪼갬니다. 그리고 쪼갬 성체 조각 일부를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어린양’을 열심히 노래하시느라 미처 사제의 행동을 못 보실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사제는 성체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고 깊은 절을 한 다음, 성반 위에 성체를 받쳐 들어 올리고 (또는 성작 위에 성체를 받쳐 들어 올리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제는 왜 성체를 쪼개어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을까요?

무엇보다 사제는 성체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즉, 이제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받아 모실 성체와 성혈이 우리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는 기원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 우리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쪼개진 성체가 성혈과 다시 합쳐지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를 표시” (미사경본 총지침 83항)하며, 파스카 신비 안에서의 일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빵을 쪼개어 나누는 예식은 사도 시대 교회에서도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빵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한 식탁 안에서 빵을 나눠 먹으면 모두가 한 형제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의 빵을 쪼개어 나눔은 무엇보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미사’라 부르기 전에는 ‘빵 나눔’ (Fractio panis)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8~9세기경부터 성찬례를 위한 작은 빵이 등장하면서 빵을 떼어 나눌 필요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미사에 참례하는 모든 이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빵을 쪼개고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는 것입니다.

이처럼 빵을 나누는 예식은 이제 곧 행할 영성체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1코린 10,17 참조)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성체를 쪼개어 나누고, 그 조각을 성혈이 담긴 성작에 넣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례와 미사의 영성 41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 전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제도 영성체 전에 성체를 신자들에게 들어 보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사 때 우리는 왜 성경의 여러 다양한 상징과 표상들 중에서 특별히 “하느님의 어린양”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요?

“하느님의 어린양” 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고난받는 ‘야훼의 종’ 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를 염두에 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 이라고 언급한 것과 연관되기도 하며(이사 53,7),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요한 1,29). 또한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 만백성을 구원한 어린양과 연결되기도 합니다(묵시 5,8-12). 이처럼 어린양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희생 제물의 상징적 의미와 주로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양이 가진 이러한 희생의 측면과 연관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참된 파스카의 어린양이자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희생 제사인 미사 안에서 재현되고 현재화되기에, 우리 삶의 참된 어린양이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제는 성반이나 성작 위로 성체를 받쳐 들어 올리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쪼개진 성체를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사랑을 다시 주님께서 거둬 가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런 성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 자신의 노예를 고쳐 주길 청하였던 백인대장의 믿음과 연관된 것으로(루카 7,1-10) 우리 또한 지존하신 주님을 모실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청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 고백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의탁의 모습’ 입니다. 둘째는 ‘합당치 않다’ 라고 스스로 낮추어 고백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하느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겸손함’ 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은총이 아니라 ‘한 말씀’ 이라고 하는 ‘은총의 본질을 청함’ 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 참된 영혼의 치유가, 즉 우리의 구원이 이뤄지길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참된 어린양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정성스레 영성체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시편 33,6)



전례와 미사의 영성 42

✎ 김혜종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영성체

첫영성체를 하는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성체가 어떤 맛일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잔뜩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성체를 모신 후 자신들의 기대와 사뭇 다름에 살짝 당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정성스럽게 성체를 모시고 두 손 모아 정성 어린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모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전부터 성체를 모셔 온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고 있나요?

나 자신이 얼마나 정성되이 성체를 모시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의 유용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공심재(공복제)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공심재(공복제)는 영성체하기 한 시간 전에 음식을 먹지 않고(물과 약은 제외)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 자신을 비움으로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움이란 신체적인 공복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준비시키는가가 더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욕심과 미움, 삶에 대한 불평들을 비워낼 수 있는 모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심재의 기본 정신은 성경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루카 21,36 참조) 가운데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경건한 영성체를 위해 손이 아닌 입으로만 성체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손으로 성체를 모시는 방식과 입으로 성체를 모시는 방식, 둘 다 가능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161항 참조). 그러니 꼭 입으로 모시는 방식만이 성체를 경건하게 모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성체와 관련하여 특히 사제가 모신 큰 성체를 본인도 모실 수 있는가에 유난히 신경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성체는 그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사제가 모신 큰 성체 조각에 더 큰 은총이 깃들어 있고, 작은 성체에 작은 은총이 깃든 게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내 존재의 모습입니다. 성체의 은총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성체를 모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같은 성체를 나누어 모심으로써 한 몸을 이룹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83항 참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수직적 측면), 같은 성체를 받아 모신 다른 이들과도 사랑 안에 일치하는(수평적 측면) 신앙의 신비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성되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보배로우신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영성체 후 기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전례와 미사의 영성 43

리/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전례와 미사의 영성 : 마침 강복과 파견

어느 신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계시던 신부님은 신자분들을 배려하셔서 영성체 후에 신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때 공지사항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를 위해 일어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영성체 후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다시 앉으라 하신 다음 공지사항을 말씀하신답니다. 공지사항 때문에 금방 다시 앉을 텐데 왜 번거롭게 그러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성체 후에 바로 이어서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신 성체의 은총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청하는 기도가 ‘영성체 후 기도’이고, 이 ‘영성체 후 기도’는 방금 전에 행한 신자들의 영성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체를 모신 후 일상에서 성실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성체의 은총을 ‘영성체 후 기도’를 통해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다음 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166항 참조).

그리고 마침 강복과 파견으로 미사를 마칩니다. 강복을 할 때 십자가의 형태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느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 안에 머물길 청하며, 우리는 강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습니다.

이러한 마침 강복과 파견을 통해 미사를 마치면 우리는 미사 때 받은 은총을 지니고, 다시 우리 각자의 삶으로 파견됩니다. 이때 마치는 성가를 퇴장 성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파견 성가라고 해야 할지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입당 성가가 있으니 당연히 짝을 맞춰 퇴장 성가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사의 신학적 의미를 고려하자면 파견 성가가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의 은총을 통해 성화된 우리는 이제 세상에 파견되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성화하는 사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세례 때 받은 보편 사제직을 일상 안에서 살아가며,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삶은 하나의 제단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보편 사제직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 지난 시간 동안 ‘전례와 미사의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가 단지 하나의 형식화된 오랜 예식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지금 여기서’ 현재화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언어와 상징, 동작들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례가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 현장 10항)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기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전례와 미사의 영성」을 연재해 주신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님의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가 연재됩니다.

